

한국어 모음 사이 경음과 격음의 발음에 대하여*

-한국인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비교 연구-

최혜화**

〈차 례〉

1. 서론
2. 연구 방법
3.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의 실현 양상
4. 모음 사이 경음과 격음의 발음 특징에 대한 원인 분석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구어에서 모음 사이 경음과 격음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해당 발음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어에서 두 음절이 연쇄될 때, 실현되는 발음의 음절 구조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경우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발음과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 현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성학적 발화 실험을 통해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에 대해 비교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모국어 화자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V-CV 음절 구조를 발음할 때 앞 음절에 중성을 첨가하여 ‘후행 경음/격음의 동기관 평음으로 끝나는 폐음절 +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VC-CV 구조로 발음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동기관 평음 중성을 첨가하지 않고 표준 발음법에 따라 V-CV 음절 구조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모국

* Supported by “the Fundamental Research Funds for the Central Universities” in UIBE (19QD16).

**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서로 다른 발음 양상이 나타난 원인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국어 화자의 실제 발음 양상이 표준 발음법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국어 화자의 발음에서 종성 첨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음과 격음의 긴장성 자질에 기인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다운 자연스러운 발음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한국어 교재와 사전에 설명된 표준 발음법에 대한 기계적인 학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한국어 발음, 경음, 격음, 종성 첨가

1. 서론

한국어의 구어 발음에는 다양한 음운 현상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사전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모국어 화자들의 실제 발화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음운 현상 중의 하나인 ‘종성 첨가 현상’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즉 두 음절이 연쇄될 때, 실현되는 발음의 음절 구조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경우, 선행 음절의 음절말에 종성이 첨가되어 ‘오빠[읍빠], 기차[긴차]’와 같이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에 종성이 첨가되어 실제 발화에서는 VC-CV 음절 구조로 발음이 실현되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를 녹취한 음성 자료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를 녹취한 음성 자료를 기반으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종성 첨가 현상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이러한 실제 발화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과 음운 규칙을 더욱 세분화하고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지도 방안의 연구에도 기여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연구 자료

(1) 피험자 선정 기준

본 연구의 피험자는 총 8명으로 한국인 4명과 중국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국적 별로 남녀 각각 2명 씩 섭외하였고 학력은 모두 대학교 이상으로, 나이는 20대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한국인 피험자의 선정 기준은 반드시 서울 경기권 태생으로서 표준어를 구사하고, 한국어 표준어 언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인 피험자의 선정 기준은 반드시 중국 대륙 태생으로서 중국어 언어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국어도 제2언어로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인 피험자는 한국 서울에서 언어 교육과정을 거치고, 한국어언어능력시험(TOPIK)에서 고급 등급을 취득하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한국어 언어 환경으로 되어있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이 구어 능력이 수월한 중국인을 섭외하였다.¹⁾ 이렇게 선정된 총 8명의 피험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1-1] 모국어 화자 정보

피험자	국적	성별	출생 및 성장지	나이	직업
S1	한국	여	서울	만24세	대학생
S2	한국	여	서울	만23세	대학생
S3	한국	남	서울	만22세	대학생
S4	한국	남	서울	만29세	직장인

1)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섭외할 때 최대한 수월한 한국어 구두 능력을 가진 중국인 학습자를 섭외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종성의 발음 구분에 관련된 연구로서 한국어 구두 능력이 수월하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종성의 발음 구분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2] 중국인 학습자 정보

피험자	국적	성별	한국어 학습 기간	나이	직업
S'1	중국	여	4년	만22세	대학생
S'2	중국	여	7년	만25세	대학원생
S'3	중국	남	5년	만24세	대학생
S'4	중국	남	8년	만27세	직장인

(2) 실험 자료 선정 기준

발화 실험 자료는 두 부류의 어휘가 포함된다. 한 부류는 음절 구조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즉 V-CV 음절 구조의 단어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음절 구조가 ‘평음으로 끝나는 폐음절+동기관음²⁾ 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즉 VC-CV 음절 구조의 단어들이다. 실험 자료로 선정된 어휘는 총 18개이고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1-3] 발화 실험 어휘 목록³⁾

구분		경음		격음	
		V-CV	VC-CV	V-CV	VC-CV
폐쇄음	ㄱ	아끼다	약기다	코코아	콧콧아
	ㄷ	이따가	있다가	그토록	근토록
	ㅂ	아빠다	앞바다	커피	컵피
과찰음	ㅈ	타짜	탓짜	바치다	받치다
마찰음	ㅅ	아가씨	아갓씨	***	***

2) 동기관음이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동일하지만 발성 유형이 서로 다른 자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ㄱ/, /ㄷ/, /ㄷ/는 서로 동기관음이다.

3) 실험 자료로 선정된 어휘들은 대부분 사전적으로 유의미한 단어를 선정하였지만 개별적인 5개 단어는 무의미한 단어이다. 한국어에서 ‘바치다/받치다’와 같이 음절 구조가 비슷하고 음소 구성이 비슷한 유의미한 단어들의 수량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유의미한 단어로 선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2) 자료 분석 방법

(1) 음성 자료 녹취

음성 자료 녹음은 피험자를 각자 단독으로 섭외하여 조용한 실내에서 실험 자료 단어들을 각각 2회 씩 발화하도록 하였다. 녹음은 Awesome Voice Recor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표본 추출률은 44000Hz로 설정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은 wav파일로 저장하였다.

실험 자료로 선정된 총 18개 단어를 8명의 피험자가 2회 씩 발화하였으므로 검토 자료는 총 288개이다. 녹취한 모든 발화는 분석 가능한 발음으로서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분석 자료는 288개이다.

(2) 분절음 길이 측정

녹음을 통해 획득한 음성 파일은 스웨덴 왕립기술원(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소속의 음성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프로그램 웨이브서퍼(WaveSurfer)를 이용해 분절음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음성분석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의 총 길이, 선행 모음의 길이, 모음 사이 자음의 길이, 자음의 폐쇄 구간과 마찰 구간, VOT(voice onset time : 폐쇄음이 개방한 후 성문 마찰로 인해 소음이 동반되면서 성대가 진동하는 시간 길이) 등을 측정하였다.

분절음들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선행 모음은 규칙적인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보이는 지점에서부터 자음의 폐쇄가 시작되는 지점까지로 측정되었다. 폐쇄 구간은 규칙적인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이 끝나고 음파와 스펙트럼이 보이지 않고 스펙트로그램 상 공백이 보여지는 구간이다. 폐쇄 구간의 길이 측정에 관련하여 스펙트로그램으로 어중 폐쇄음의 발음을 관찰해 보았을 때 선행 모음이 끝난 후, 즉 모음 뒤 폐쇄 구간의 앞부분에서 스펙트로그램 상 세로선으로 보이는 음향 정보가 관찰될 때가 있다. 이것은 선행 모음의 발음은 끝났지만 모음을 발음할 때 진동되었던 성대가 갑자기 멈추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진동되는 현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구간을 폐쇄 구간

으로 인정하였다. 자음은 선행 모음의 끝점과 후행 모음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측정 되었고 종류에 따라 폐쇄 구간과 마찰 구간 그리고 VOT의 길이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3.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의 실현 양상

1) 모국어 화자의 발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국어 화자의 경우 대체로 V-CV 음절 구조 단어와 VC-CV 음절 구조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음절 구조 유형에 따라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났는지 [표2-1]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표2-1]의 수치는 피험자들의 음성 파일을 통해 측정한 분절음들의 평균 길이이다.

[표2-1] 모국어 화자의 V-CV와 VC-CV 음절 구조 발음 양상(단위: ms)

구분		선행 모음	어중 자음		전체 길이
			폐쇄 구간	마찰 구간	
폐쇄음	V-CV	65	148	30(VOT)	243
	VC-CV	58	167	34(VOT)	259
파찰음	V-CV	68	143	64	275
	VC-CV	64	183	70	317
마찰음	V-CV	124	0	203	327
	VC-CV	95	0	226	321

V-CV 음절 구조의 경우 선행 모음의 평균 길이는 약 85ms이고 어중 자음의 평균 길이는 약 196ms이다. VC-CV 음절 구조의 경우 선행 모음의 평균 길이는 약 72ms이고 어중 자음의 평균 길이는 약 227ms이다. 두 가지 음절 구조에서 선행 모음과 어중 자음의 발음 양상이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경우 모두가 어중 자음을 선행 모음의 약 2.5 배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다. 즉 모국어 화자들은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다.

마찰음의 경우 폐쇄음 및 파찰음과 달리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에서 특이한 발음 양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C-CV 음절 구조에서 어중 자음이 마찰음일 경우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폐쇄 구간의 측정 수치가 0으로 나타났다. 즉 폐쇄 구간이 관찰되지 않고 마찰 구간만 관찰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모국어 화자들이 ‘아갓씨’를 사전적 발음대로 /아간씨/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갓씨/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과 다르게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음절 구조 유형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음에서 어떠한 양상이 나타났는지 [표2-2]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표2-2]의 수치는 피험자들의 음성 파일을 통해 측정된 분절음들의 평균 길이이다.

[표2-2] 중국인 학습자의 V-CV와 VC-CV 음절 구조 발음 양상(단위: ms)

구분		선행 모음	어중 자음		전체 길이
			폐쇄 구간	마찰 구간	
폐쇄음	V-CV	94	96	35(VOT)	225
	VC-CV	83	235	40(VOT)	358
파찰음	V-CV	101	63	52	216
	VC-CV	90	189	86	365
마찰음	V-CV	147	0	149	296
	VC-CV	82	241	186	509

두 가지 음절 구조에서 선행 모음과 어중 자음의 발음 양상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V-CV 음절 구조의 경우 선행 모음의 평균 길이는 약 114ms이고 어중 자음의 평균 길이는 약 131ms이다. VC-CV 음절 구조의 경우 선행 모음의 평균 길이는 약 85ms이고 어중 자음의 평균 길이는 약 325ms이다. V-CV 음절 구조의 경우 어중 자음과 선행 모음을 약 1:1의 비례로 발음하고 있고, VC-CV 음절 구조의 경우 어중 자음을 선행 모음의 약 3.5배로 발음하고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이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찰음의 경우 VC-CV 음절 구조의 발음에서 폐쇄 구간의 길이가 241ms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마찰음을 폐쇄음으로 전환시켜 발음한 것을 의미한다. 즉 VC-CV 음절 구조에서 어중 자음이 마찰음일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들과 다르게 평폐쇄음화 음운 규칙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갓씨’를 모국어 화자처럼 /아갓씨/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와 사전에 설명된 것과 같이 /아간씨/로 발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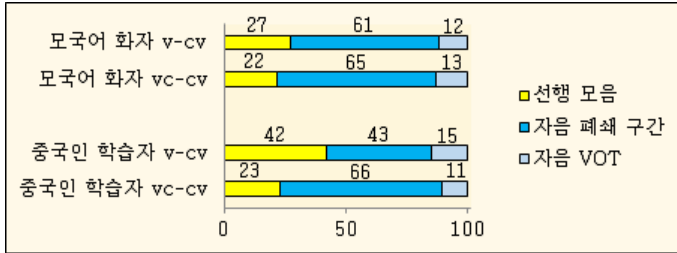
3)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차이

앞에서 논의된 두 언어권 별 화자의 발음 특징을 토대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V-CV와 VC-CV 음절 구조의 구별 발음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다. 어중 경음/격음은 자음의 발음 방법에 따라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폐쇄 구간과 마찰 구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래 어중 경음/격음을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분류하여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다.

(1) 어중 경음/격음이 폐쇄음일 경우

[그림3-1]은 어중 경음/격음이 폐쇄음일 경우 피험자들의 실제 발음 평균 길이를 비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

을 비교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림3-1] 선행 모음과 어중 폐쇄음의 비례(단위: %)

모국어 화자들의 발화에서는 어중 자음이 폐쇄음일 경우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에서 거의 동일한 발음 양상이 나타났다. VC-CV 음절 구조가 V-CV 음절 구조보다 선행 모음의 길이가 약간 줄어들고 폐쇄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모국어 화자들도 어느 정도 표기형의 영향을 받아 VC-CV 음절 구조에서 무의식적으로 선행 음절의 중성 폐쇄 발음을 길게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중 자음이 폐쇄음일 경우 모국어 화자들은 V-CV 음절 구조를 VC-CV 음절 구조와 거의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국어 화자들은 V-CV 음절 구조에서 어중 경음/격음이 폐쇄음일 경우 선행 음절의 중성 위치에 동기관 평음을 첨가하여 VC-CV 음절 구조와 동일하게 발음한다는 것이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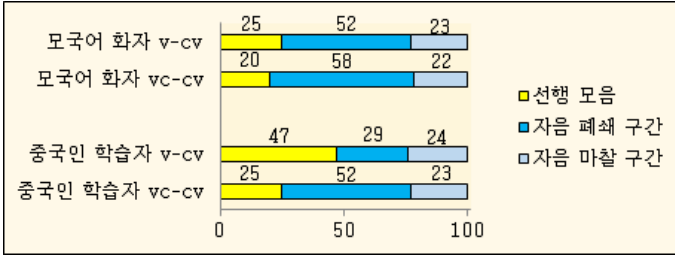
4) 모음 사이의 경음/격음의 발음에 관하여 모국어 화자들이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는 것은 김유범·오재혁(2013), 양순임(2005) 등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음운 현상과 관련된 음운 원리에 대한 견해는 논란을 보이고 있다. 김유범·오재혁(2013), 신지영(2014), 유계원(1989) 등에서는 VC-CV 음절 구조에서 불파음 중성이 탈락하여 V-CV 음절 구조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고, 김경아(2000), 배주채(2011) 등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였지만 이것을 수의적인 현상으로 주장하였다. 반면에 김영송(1981)에서는 불파음 중성의 탈락을 인정하지 않고 V-CV 음절 구조에서 불파음 중성이 첨가되어 VC-CV 음절 구조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성원·전종호(1998)에서도 폐음절 모음의 단축화를 근거로 경음/격음은 중복자음으로서 V-CV 음절 구조에서 경음과 격음이 양음절화되어 VC-CV 음절 구조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에서는 어중 자음이 폐쇄음일 경우 음절 구조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발음 양상이 나타났다. VC-CV 음절 구조에서는 모국어 화자와 유사한 발음 양상이 나타난 반면에 V-CV 음절 구조에서는 모국어 화자와 달리 선행 모음을 길게, 어중 폐쇄음의 폐쇄 구간을 짧게 발음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은 두 가지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발음 특징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어중 폐쇄음의 폐쇄 구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모국어 화자처럼 동기관 평음을 추가하여 V-CV 음절 구조를 VC-CV 음절 구조로 발음하지 않고 원래의 V-CV 음절 구조에 충실하여 발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어중 경음/격음이 파찰음일 경우

[그림3-2]는 어중 경음/격음이 파찰음일 경우 피험자들의 실제 발음 평균 길이를 비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비교하여 관찰할 수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의 명확한 발음 구분이 가능한 현상(중국인 학습자가 선행 모음을 길게, 경음/격음을 짧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경음/격음의 고유적 속성이 선행 모음을 원래의 절반에 가까운 길이로 짧게 단축시키고, 경음/격음 자체가 연속된 두 개의 자음만큼 길이가 긴 장자음이 아님을 반증해줌)을 바탕으로 최성원·전종호(1998)의 '폐음절 모음 단축화'의 견해를 수용하여(즉 모국어 화자들이 V-CV 음절 구조를 선행 모음을 짧게, 경음/격음을 길게 발음하는 원인이 경음/격음이 선행 모음을 원래의 절반에 가까운 길이만큼 짧게 만드는 기능이 있거나 경음/격음 자체가 연속된 두 개의 자음만큼 길게 실현되는 장자음인 것이 아니라 선행 음절에 불파음 중성이 첨가 되어 폐음절에서 모음이 단축된 것임) 모국어 화자들이 V-CV 음절 구조에서 폐음절 중성을 첨가하여 VC-CV 음절 구조로 발음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3-2] 선행 모음과 어중 파찰음의 비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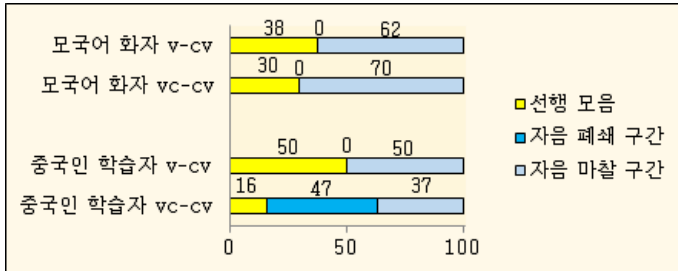
모국어 화자의 발화에서 어중 파찰음은 어중 폐쇄음과 거의 동일한 발음 양상이 나타났다. 즉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모두 선행 모음을 짧게, 폐쇄 구간을 길게 발음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별점도 존재하는데 바로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첨가되는 음이다. 폐쇄음의 경우 동기관 평음이 첨가 되지만 파찰음 /ㅈ/, /ㅊ/의 경우에는 /ㄷ / 종성이 첨가된다. 그 근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관찰할 경우 만약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파찰음의 동기관 평음이 첨가되었다면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는 폐쇄 구간과 마찰 구간이 동시에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폐쇄 구간만 늘어난 것으로 보아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폐쇄음이 첨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단어 ‘탓짜’의 발음은 평폐쇄음화를 거쳐 /탄짜/로 발음하게 되는데 V-CV 음절 구조인 ‘타짜’도 단어 ‘탓짜’와 동일한 발음 양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첨가된 폐쇄음은 /ㄷ/임을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에서도 어중 경음/격음이 파찰음일 경우 폐쇄음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즉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는데 VC-CV 음절 구조에서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한 발음 양상을 보이지만 V-CV 음절 구조에서는 모국어 화자와 다르게 종성을 추가하여 발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중 경음/격음이 마찰음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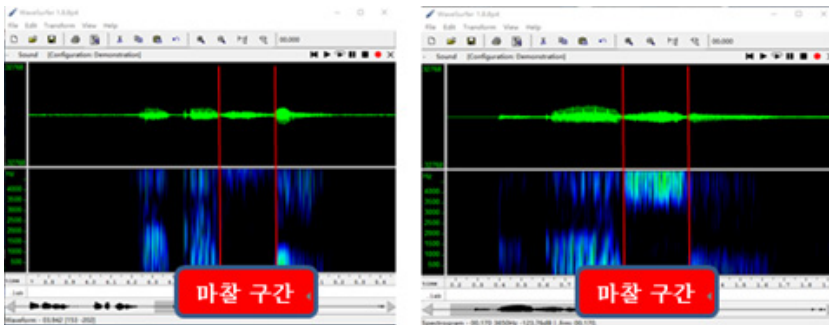
[그림3-3]은 어중 경음/격음이 마찰음일 경우 피험자들의 실제 발음 평균

길이를 비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비교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림3-3] 선행 모음과 어중 마찰음의 비례(단위: %)

모국어 화자의 발화에서 어중 경음이 마찰음일 경우 어중 경음/격음이 폐쇄음과 파찰음의 경우와 비해 선행 모음을 조금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는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폐쇄음, 파찰음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중 경음이 마찰음의 경우에도 모국어 화자들은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동기관음을 추가하여 VC-CV 음절 구조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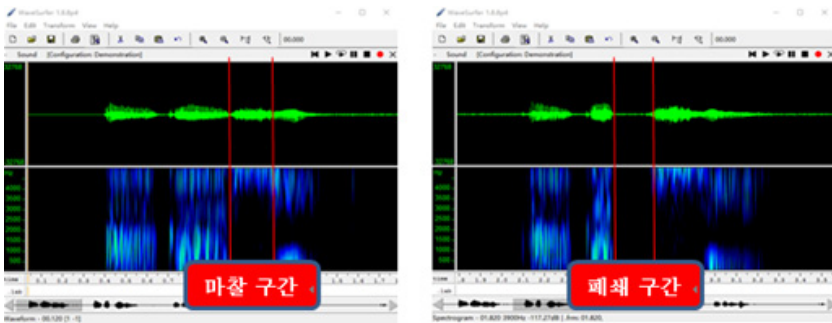


(아가씨)

(아갓씨)

[그림3-4] '아가씨/아갓씨'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모국어 화자)

그러나 [그림3-4]에 알 수 있듯이 어중 경음이 마찰음의 경우에는 폐쇄음, 파찰음과 다르게 폐쇄음이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찰음 /ㅅ/이 첨가된다. 단어 ‘아가씨’와 ‘아갓씨’는 모음 사이에서 마찰 구간만 관찰된다. 즉 모국어 화자들은 단어 ‘아가씨’와 ‘아갓씨’를 /아간씨/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갓씨/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어 화자들의 음성 파일을 관찰했을 때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선행 음절과 어중 마찰음 사이에 폐쇄 구간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선행 모음의 길이가 줄어들수록 마찰 구간이 길어짐으로서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마찰음이 첨가되어 발음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아가씨)

(아갓씨)

[그림3-5] ‘아가씨/아갓씨’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중국인 학습자)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모국어 화자와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그림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V-CV 음절 구조에서는 원래의 음절 구조에 충실하여 음을 첨가하지 않고 발음하고 있고, VC-CV 음절 구조에서도 음절 구조와 음운 변동 규칙에 충실하면서 선행 음절의 종성 /ㅅ/이 평폐쇄음화를 거쳐 /ㄷ/으로 발음하고 있다. 즉 ‘아가씨’는 /아가씨/로, ‘아갓씨’는 /아간씨/로, /ㄷ/ 종성과 /ㅅ/ 종성을 혼동하지 않고 음절 구조 유형도 명확하게 구별하여 한국어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4. 모음 사이 경음과 격음의 발음 특징에 대한 원인 분석

1) 모국어 화자의 발음 특징에 대한 원인 분석

(1) 경음/격음 긴장성 자질의 영향

한국어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에 종성이 첨가되는 현상은 어중 자음이 경음/격음일 경우에만 발생한다. 아래 [표4-1]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동일한 평음, 경음, 격음은 긴장성 자질과 기식성 자질에 의하여 구별되는데 경음과 격음은 공통으로 [+긴장성]을 가지고 있고 평음은 [-긴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V-CV 음절 구조에서 자음이 평음일 때에는 종성이 첨가되지 않고 경음/격음일 때에만 첨가되는 원인을 긴장성 자질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표4-1] 발성 유형 자질⁶⁾

	평음	경음	격음
[긴장성]	-	+	+
[기식성]	-	-	+

자음의 긴장성(Tense) 자질이란 자음이 조음되는 과정에서 후두 혹은 조음부의 긴장을 동반하는 특징을 말한다. 경음의 경우 조음될 때 조음 기관의 긴장도가 높은 편이고 격음과 음절 말 불파음의 경우도 경음보다는 긴장도가 낮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성을 가지고 있다. 음절 말 불파음의 긴장성에 관하여 양순임(2001)에서 [표4-2]과 같이 자세히 다루어진 바가 있다. 양순임(2001)에서는 음절말 폐쇄음의 불파음화를 ‘긴장성 끝소리되기’로 명명하고 ‘ㅂ, ㄷ, ㄱ’ 계열의 폐쇄음은 장애음이나 휴지 앞에서 긴장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양순임(2005)에서도 음절 말 폐쇄음의 음성학적 특성이 평음보다는

6) 신지영, 『한국어의 말소리』, 박이정, 2014, 148쪽.

경음에 가깝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⁷⁾

[표4-2] 음절말 불파음의 긴장성 자질⁸⁾

자질		음성적 특성	불파음 ㅂ, ㄷ, ㄱ
후두 긴장성	조음적	후두근 긴장 [성문 열림도] 좁음 후두의 상승 운동이 있음	+ + +
		지넘 단계에서는 안올림 인접 흡소리의 피치를 높임 인접한 올림소리의 길이를 단축시킴 올림시작시간이 가장 짧음	+ ? + +
조음부 긴장성	음향적	조음부 근육 활동 증가 능동부와 고정부의 접촉 면적이 넓어짐 지넘 시간이 더 길 성문과 조음 위치 사이에 기압이 높음	+ + * +
		목음 구간이 더 길 인접한 흡소리의 포먼트가 덜 감폭 터뜨림 소음의 강도가 더 높고 빨리 쌓임 후행 흡소리의 포먼트가 더 날카롭게 시작하고 덜 감폭	* ? * *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의 모음은 발음할 때 조음 기관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성대의 진동만 동반됨으로서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음 뒤에 오는 경음/격음은 비교적 강한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긴장성 격차는 모국어 화자들로 하여금 발음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들은 발음상 편리를 위하여 선행 모음의 뒤에 종성을 첨가하여 긴장성 격차를 완화시켜 발음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첨가되는 종성은 결과적으로 모두 폐쇄음으로 실현되는데 종성 위치의 폐쇄음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 폐쇄음은 ‘폐쇄 → 지속 → 개방’의 과정을 거치며 생성되는 소리이지만 종성 위치에서는 개방되지 않고 폐쇄와 지속의 과정만이 일어난다. 종성을 불파음

7) 양순업, 『한국어 음절 말 폐쇄음에 대한 음향 및 청각 음성학적 연구』, 『한글』 269, 한글학회, 2005, 96쪽.

8) 양순업, 『음절 끝 닿소리와 된소리되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04쪽.

으로 받음하며 폐쇄된 기류를 지속시키려는 과정에서 조음 기관이 긴장을 하면서 [+긴장성] 자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즉 모국어 화자들은 선행 모음과 어중 경음/격음의 긴장성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그 사이에 약간의 [+긴장성] 자질을 가진 불파음을 첨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언어 경제성 원리의 영향

한국어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되는데 음절 연쇄에서 모국어 화자들은 발음의 편리를 위하여 흔히 음운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등 음운 규칙을 적용하여 초성과 중성 위치의 자음이 변동을 가지게 된다. 이 중에서 분절음들이 음성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많은 현상들은 언어 경제성 원리의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현상도 언어 경제성 원리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V-CV 음절 구조에서 모국어 화자들이 종성을 첨가하는 원인이 두 분절음 사이의 긴장성 격차에서 편리한 발음법을 찾으려는 경향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느 정도의 긴장성 자질을 가진 중성 위치 불파음을 모음과 경음/격음 사이에 첨가하여 발음기관의 편안한 움직임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모국어 화자들이 두 음절의 연쇄에서 모음 사이에 마찰음 /s+ʃ/, /ʃ/이 존재할 경우 선행 음절의 중성 위치에서 /s/과 /ɰ/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않는 현상도 경제성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ɰ/ 중성 뒤에 /ʃ/ 초성을 발음하기보다 /s/ 중성 뒤에 /ʃ/ 초성을, 즉 모음 사이에서 중복 자음을 발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편안하다. 때문에 모국어 화자들은 선행 음절 중성 위치의 /ɰ/을 /s/으로 발음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행 동화 현상으로서 발음기관의 편안함을 위한 경제성 원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특징에 대한 원인 분석

(1) 발음 교육의 영향

앞에서 논의된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국인 학습자들이 V-CV 음절 구조에서 모국어 화자와 다른 발음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선천적으로 불가능한 한국어 발음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단어 표기형의 변화나 음절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발음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충분히 정확한 발음 교육을 통해 모국어 화자다운 자연스러운 발음의 실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 화자와 다른 발음 양상이 보여지는 주요한 부분은 V-CV 음절 구조의 발음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한국어 표준 발음법의 기술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의 모음 뒤에 불파음 종성이 첨가되는 현상은 현재 한국어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현상으로서 해당 어휘들의 발음에 대한 기술은 모두 종성이 첨가되지 않는 상태로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끼다'의 경우 표준 발음법과 한국어 교재에서는 /아끼다/로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은 /아끼다/가 된다. 모국어 화자들은 어릴 때부터 주위의 언어 환경 속에서 발음을 구두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구두 발화에서도 표준 발음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발음하지 않고 자기만의 발음 습관대로 발음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대부분은 책으로 발음법을 배우고 다시 실천에 옮기기 때문에 교재나 사전에 기술된 그대로 발음을 하게 된다. 때문에 분절음의 발음을 정확히 터득할지라도 실제 생활 속의 발화에서는 모국어 화자다운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게 된다.

(2) 중국어 발음 습관의 영향

중국어 음소 체계에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에 완전히 똑같이 대응되는 음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어의 무기 무성음 /g/, /d/, /b/, /z, j/, /s, x/은

한국어의 경음 /ㄱ/, /ㄷ/, /ㅃ/, /ㅈ/, /ㅉ/에 가깝고 중국어의 유기 무성음 /k/, /t/, /p/, /c/은 한국어의 격음 /ㄱ/, /ㄷ/, /ㅃ/, /ㅈ/에 가깝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경음과 격음에 대응되는 비슷한 음소들이 중국어 음소 체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경음과 격음을 조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 음소 체계에는 평음의 발성 유형과 대응되는 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중국어 자음의 자질에는 [+긴장성]과 [-긴장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는 성조가 존재하여 음절의 연쇄에서 어느 정도 휴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음절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에 비해 [-긴장성] 자질의 모음과 [+긴장성] 자질의 경음/격음의 연쇄에서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a-ge/(阿哥), /a-po/(阿婆)와 같이 한국어 경음/격음에 대응되는 /g/, /k/ 자음들이 모음 뒤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인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음절 사이에 다른 음소를 첨가하는 습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의 경제성 원리는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모든 언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언어마다 각자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성 원리가 적용된다. 한국어에서 음소 사이의 긴장성 격차가 심할 경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껴 편안하게 발음하기 위하여 음소 사이에 다른 음소를 첨가하여 발음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의 발음 습관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발음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V-CV 음절 구조의 연쇄에서 선행 모음과 후행 자음의 사이에 음을 첨가하는 경향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3)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

(1) 음절 구조의 차이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음운 변동 규칙에 따라 그 유형이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하지만 중국어의 음절 구조 유형은 ‘성모+운모’의 구조로 단일하게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고정적이어서 음운 변동에 의하여 음절 구조가 자유롭게 변화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되는데 구어 발화에서 음운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등 음운 현상들은 흔히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음절 구조의 변화와 분절음들의 변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발음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들은 음절 연쇄에서 발음에 불편함이 존재하거나 발음상으로 어려움이 나타날 경우 음운 변동 규칙을 활발하게 적용하여 음절 구조도 수시로 변화시키고 분절음들도 수시로 변화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단어 ‘같이’의 경우 /가치/로 발음되는데 선행 음절은 CVC 구조에서 CV 구조로, 후행 음절은 V 구조에서 CV구조로 변화를 가지고, 자음 /ㄷ/은 구개음화 음운 규칙에 의하여 /치/으로 변화를 가진다. 이와 같이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음절 구조의 변화와 분절음의 변화로 편리한 발음법을 추구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반면에 중국어에서 음절을 이루는 단위는 한국어의 초성, 중성, 종성 개념과는 다르게 성모와 운모의 두 개 개념이 있다. 성모는 초성에 오는 자음에 대응하고 운모는 중성에 오는 모음과 일반적으로 대응한다. 운모 중에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의 자음들은 운모의 모음 부분에 붙어서 모음과 한 덩어리로 인식되고 발음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음절 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분절음을 첨가하거나 탈락시켜 음절 구조를 변화하면서 편리한 발음법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변화도 자유롭기 때문에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어중 자음이 경음/격음일 경우 V-

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에 종성을 첨가하여 음절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편리한 발음법을 찾는 데 익숙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중국어의 고정적인 음절 구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발화할 때 수시로 음절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경향이 없는 것이다.

(2) 종성 자음의 차이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종성을 발음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중국어의 음절 구조는 성모과 운모로 구별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종성을 발음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된다.

한국어의 종성 발음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등 7개 음이 존재하고 모국어 화자들은 7개 종성을 모두 자유롭게 편안하게 조음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선행 모음과 어중 경음/격음의 긴장성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불파음 종성을 그 사이에 첨가하면 더 편안하게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성조를 제외한 음절 구조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다양한 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종성에 해당되는 자음을 찾아보면 운모 중에서 성화운모라고 불리는 /er/, 부성운모라고 불리는 /-n/, /-ng/ 계열의 운모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음들은 한국어 종성에서 /ㄹ/, /ㄴ/, /ㅇ/ 등 비음이나 유음의 발음과 비슷할 뿐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ㄱ/, /ㄷ/, /ㅂ/ 불파음 종성은 현대 중국어에서 해당되는 자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불파음 종성을 첨가하면 도리어 더 불편한 발음이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모국어 화자들은 한국어 종성을 편안하게 발음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종성을 자유롭게 첨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종성의 발음에 익숙하지 않아 종성을 첨가하면 발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논의된 V-CV 음절 구조의 발음에서 두 언어권 별 화자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 비교를 통해 모국어 화자들이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V-CV 음절 구조를 발음할 때 종성을 첨가하여 ‘동기관 평음으로 끝나는 폐음절⁹⁾+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VC-CV 구조와 동일하게 발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종성 첨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경음과 격음의 긴장성 자질에 있는 것으로, 선행 모음과 경음/격음의 급격한 긴장성 격차를 완화시키고 조음 기관의 더욱 편리한 움직임을 위하여 그 사이에 일정한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폐쇄음 종성을 첨가하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V-CV 구조를 발음할 때 종성을 첨가하지 않고 V-CV 음절 구조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음성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의 모음 사이 경음과 격음의 발음이 모국어 화자답게 자연스럽지 못한 원인은 학습자 본인이 통제 불가능한 발음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의 부자연스러운 발음의 원인은 학습자의 표준 발음법에 국한된 기계적인 발음 학습과 중국어의 발음 습관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라는 같은 음운 환경에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서로 다른 발음 양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한국어의 경우 음절 구조가 삼분 체계로 되어있고 음운 변동이 다양하여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은 구어에서 분절음들을 자유롭게 변화시켜 발음하는 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종성 위치에서 불파음 종성도 쉽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불파음 종성의 첨가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어의 경우 음절 구조가 이

9) 본고의 제3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마찰음의 경우 폐음절이 아니고 ‘스’ 종성인 개음절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분 체계로 되어있고 음운 변동도 비교적 단일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발화 과정에서 분절음들을 변화시키는 데 익숙하지 않다. 이밖에 현대 중국어의 음운 체계에는 불파음 종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발화에서 불파음 종성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가 음절 구조, 음운 변동, 종성 위치의 자음 종류 등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같은 음운 환경에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상이한 발음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 참고문헌

1. 저서

- 김성규·정승철,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김경아,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태학사, 2000.
 김영승, 『우리말 소리의 연구』, 과학사, 1981.
 박시균, 『한국어 음성 음운 교육론』, 한국문화사, 2013.
 박창원, 『한국어의 표기와 발음』, 지식과 교양, 2012.
 배주채, 『국어 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2011.
 신지영,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4.
 _____, 『한국어의 말소리』, 박이정, 2014.
 이진호,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2014.
 임 운, 『음향분석을 이용한 발음지도』, 한국문화사, 2013.

2. 논문

- 강식진, 「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절음 음운변동 대조 연구」, 『중국어학』 36, 대한중국어학회, 2010, 1~29쪽.
 김경아, 「국어 장애음의 분류와 후두 자질」, 『국어학』 30, 국어학회, 1997, 35~64쪽.
 김유범·오재혁, 「경음화와 관련된 동일 조음 위치의 연속된 두 자음의 발음에 대하여」, 『한국어학』 58, 한국어학회, 2013, 31~53쪽.
 민광준,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발음에 나타나는 축음 삽입 현상」, 『일본문화학보』 9, 한국일본문화학회, 2000, 75~92쪽.
 박희정·신혜성·양병곤, 「후행하는 유·무성자음에 의한 모음의 지속시간 고찰」, 『음성과학』 9-4, 한국음성과학회, 2002, 175~185쪽.
 박창원, 「국어 자음의 세 자질에 대하여: 특히 후두폐쇄자질 설정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1984, 253~260쪽.
 양순임, 「음절 끝 닿소리와 된소리되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_____, 「한국어 음절 말 폐쇄음에 대한 음향 및 청각 음성학적 연구」, 『한글』 269, 한글학회, 2005, 77~100쪽.
 _____, 「불파음화와 경음화의 실현 양상 분석 - 중국인 학습자언어를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24, 우리말학회, 2009, 5~28쪽.
 유재원, 「현대 국어의 된소리와 거센소리에 대한 연구」, 『한글』 203, 한글학회, 1989, 25~48쪽.
 이경희·이봉원, 「한국어 평미찰음과 경미찰음의 음향적 특성 - 길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0, 한국어학회, 1999, 47~66쪽.
 이득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대비」, 『말소리』 27, 대한음성학회, 1994, 57~64쪽.
 최성원·전종호, 「한국어 경음·기음은 중복자음인가? - 폐음절 모음의 단축화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34-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98, 521~546쪽.
 한성우,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우리말글』 44, 우리말글학회, 2008, 165~194쪽.

韓國語緊音和送氣音的發音研究

－ 韓語母語使用者和中國籍韓國語學習者的發音對比爲中心－

崔惠花*

本研究的目的是在於探究韓國語口語中元音之間緊音和送氣音的發音特點並分析出現該發音特點的原因. 當韓國語中的兩個音節以“元音結束的開音節+緊音/送氣音開頭的音節”的形式連續, 韓語母語使用者和中國籍韓語學習者的發音有明顯的不同. 本研究以此現象爲基礎, 從實驗語音學角度出發, 通過語音實驗觀察並對比分析了母語使用者和中國籍學習者的發音特點. 分析結果表明, 母語使用者在“元音結束的開音節+緊音/送氣音開頭的音節”這個語音環境中, 會在前一音節添加韻尾, 變成“松音結束的閉音節+緊音/送氣音開頭的音節”, 即V-CV音節結構發音時會變成VC-CV音節結構. 而在同樣的語音環境中, 中國籍學習者則不添加韻尾, 而是根據韓國語標準發音法, 直接按原有的V-CV音節結構發音. 這一結果表明, 韓語母語使用者和中國籍學習者的發音之所以不同, 並不是因爲中國籍學習者的發音錯誤, 而是因爲母語使用者的發音與標準發音法不同.

對於韓語母語使用者緊音與送氣音的發音與標準發音法不同的現象, 本研究從韓國語緊音與送氣音的喉緊張性特征出發, 分析了母語使用者添加韻尾發音的原理. 對於中國籍學習者的發音無法像母語使用者那樣自然的原因, 本文也在韓國語教材和詞典層面, 漢語母語的幹擾層面等作出了分析.

關鍵詞: 韓國語發音, 緊音, 送氣音, 韻尾添加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21일 ||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2일

*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